

코리아팩 2007, 세계 3대 전시회로 거듭나

최신 포장기계와 포장재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KoreaPack 2007' 이 지난 4월 27일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그 성대한 막을 내렸다. 일산 KINTEX에서 진행된 KoreaPack 전시행사는 세계 30개국, 600개사가 참가해 외형적으로도 크게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1400부스에 걸쳐 참가한 참가사들 또한 대부분 전시성파에 만족스러워 해 전시회 내실도 키웠다는 평가다. 이제 KoreaPack은 명실상부 세계포장 관련 3대 전시회 중의 하나로 자리를 잡은 듯하다.

이런 KoreaPack의 성과는 결코 우연히 이뤄진 것이 아니다. 전시를 기획한 경영전략 김길수 팀장은 "유사 산업을 포장이라는 주제로 묶고, 점차 세계화되고 있는 전시 산업의 흐름을 파악해 그에 따른 전시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번 KoreaPack은 포장기자재전인 'KoreaPack 2007', 제약-화장품 산업전시회 'COPHEX' 외에 새롭게 연구-실험기자재 및 첨단분석장비전시회 'KOREA LAB' 를 한데 묶어 다양한 포장관련 산업이슈를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포장산업의 트렌드는 품질, 위생, 안전, 환경 중요성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노동안정성을 고려한 기자재들이 대거 선을 보였고,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같은 환경에 오염을 주지 않는 재료들이 소개됐다. 이밖에도 자동화에 따른 검사, 분석, 시험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속검지기, 이물검사기, 검사 분석기기, 인디케이터 등이 출품됐다.

마킹 포장에 새로운 시도들 돋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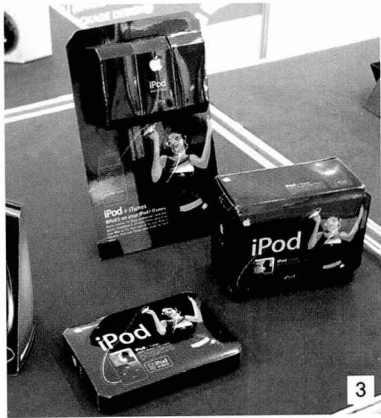
포장인쇄에 관련해서는 기계부분은 주로 마킹기와 라벨기, 후처리 등이 많았고, 소재부분에서는 고급포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종이와 필름들이 소개됐다.

GMP는 자사의 기술이 집적된 신형 써멀라미네이팅 기계들을 대거 선보였다. 이번에 새롭게 소개된 제품은 CHALLENGER ECO1020J, 1020dual과 Pioneer 700M, 28000bc, 28000dual 등이며, 기존 제품에 비해 월등히 향상된 기능으로 고품질 라미네이팅이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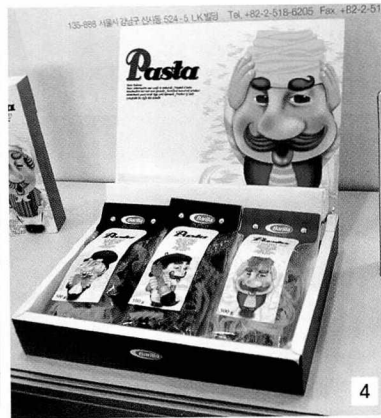


2
1 코리아팩 2007 입장을 위해 표를 받고 있는 국내 바이어들
2~6 우수포장전시회에 출품된 작품들
7 코리아팩 2007에 부스를 마련한 지엠피, 미쓰비시, 한국금박공업





3



4



5



6

능하고, 속도도 빨라져 작업능률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와 함께 PROTO PICAPLUS와 새롭게 개발한 써멀라미 필름 등도 참관객들에게 크게 인기를 끌었다.

태광에서는 'TKM-MS650Z' 라는 고속 마킹 머신을 선보였다. 이는 2기의 서버 모터에 필름 인출 구동과 썰대의 상하 운동을 위한 서브 모터를 채용해 속도와 함께 정확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썰시간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면서 운전 스피드를 가변시킬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경원마킹(주)에서는 소문자용 잉크젯 시스템인 'JET4000' 을 선보였다. 소문자용 잉크젯 시스템은 캔이나, 병뚜껑에서 유통기한이나 제조년월일을 기록하는데 쓰이는 것으로, 기존 포장기계들과 연결해 사용하며 종류는 3줄까지 표현할 수 있는 'Smart' 와 4줄까지 표현이 가능하고 150개의 메시지를 저장할 수 있는 'Custom' 으로 나뉜다.

이미지에서도 소문자형 잉크젯 프린터 '이미지 9000 시리즈' 를 내놓았다. 어떤 제품이든지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로트번호, 날짜, 유효일, 카운터, 로고 등 8라인을 인쇄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잉크와 함께 언어를 지원하고 있다. 사용자들의 편이를 고려해서 디스플레이에는 카운터와 함께 실시간 잉크, 용제 잔량 표시가 이뤄지는 것도 큰 특징이다.

김정삼 기자 sang@print.or.kr



7